'EPL 통산 100골' 손흥민의 황금 양발…오른발 55골·왼발 41골

EPL 260경기 만에 아시아 선수 최초 100호골 달성

EPL 역사상 19번째 통산 100골-50도움 기록 선수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통산 100호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8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과의 2022~2023 EPL 30라운드에서 경기 시작 10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2-1 승리에 기여했다.

감각적인 오른발 중거리슛이 적중했다.

손흥민은 전반 10분 페널티박스 왼쪽 외곽에서 슈팅 타이밍을 잡고, 오른발로 감아서 때려 골문 왼쪽을 노렸다. 절묘한 커브를 그린 공은 골키퍼의 손을 피해 브라이튼의 골네트에 정확히 꽂혔다.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2015년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후, EPL 통산 100번째(50도움) 골이었다. 자신의 EPL 260번째 경기에서 나온 대기록이다.

지난 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은 역시 아시아 최초로 통산 100호골 고지를 밟았다.

EPL 역사를 통틀어선 34번째다.

앨런 시어러, 웨인 루니, 해리 케인(이상 잉글랜드), 티에리 앙리(프랑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등 33명이 손흥민에 앞서 통산 100골 이상을 기록했다.

또 EPL 역사상 19번째로 통산 100골-50도움을 기록한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100골을 돌아보면 '황금 양발'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주발인 오른발로 55골, 왼발로 41골을 기록했다. 머리로는 4골을 넣었다.

주로 사용하는 발의 슈팅 정확도와 힘이 월등히 낫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약발(왼발)의 위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빠른 드리블에 이어 탄력을 이용해 때리는 왼발 슈팅은 손흥민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다. 그만큼 손흥민은 양발의 밸런스가 좋아 자유자재로 활용한다.

이는 공을 잡은 위치, 골대와 각도, 수비수 위치 등 여러 변수 속에서 빠르게 대응하며 슈팅을 연결하는데 최적의 기량과 능력을 갖췄다는 걸 의미한다.

삼프도리아에서 임대 생활 중인 토트넘의 전 동료 해리 윙크스는 "라인이 어디든,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손흥민에게 기회는 한 번이면 된다"며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골문 앞에서 냉정하다. 기술적 능력과 마무리가 매우 탁월하다"고 했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8일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 앤 호브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 골로 EPL 100번째 골을 기록했으며 아시아 선수의 EPL 100호골 달성은 최초이다.

미니 한일전 손흥민 완승…미토마, 핸드볼 반칙으로 결승골 허용 결정적 실수 원인 제공

경기 중인 미토마 가오루.

손흥민(토트넘)이 일본 출신 미토마 가오루(브라이튼)와 벌인 미니 한일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손흥민은 선제골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00호골을 달성한 반면 미토마는 핸드볼 반칙으로 골 기회를 놓치고 실점에 원인을 제공했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과의 2022~2023 EPL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경기 시작 10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 골을 발판 삼은 토트넘은 순위 경쟁 중인 브라이튼에 2-1로 승리했다. 1-1로 팽팽한 후반 34분 해리 케인이 결승골을 터뜨렸다. 케인의 골에도 손흥민이 기여했다. 손흥민의 패스가 호이비에르에게 전달됐고 호이비에르의 크로스가 케인의 골로 이어졌다.

손흥민이 팀 승리를 이끈 반면 이번 시즌 EPL에서만 7골을 기록하며 일본 축구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미토마는 이날 골을 넣지 못했다.

미토마는 전반 한 차례 토트넘 골망을 흔들었지만 공을 받는 과정에서 핸드볼 반칙을 범해 골로 인정받지 못했다.

나아가 미토마는 후반전 결승골의 빌미를 제공했다. 후반 34분 미토마는 무리한 발뒤꿈치 패스를 시도하다가 토트넘 수비수 로메로에게 공을 뺏겼다. 공을 넘겨 받은 손흥민은 동료 호이비에르에게 적절한 전진 패스를 넣었다. 호이비에르는 문전으로 쇄도하던 해리 케인에게 땅볼 크로스를 넣었고 케인이 골망을 흔들었다.

불화설 봉합 후 클린스만호 92라인-96라인 동반 활약

김민재 레체전 도움 등 최고 평점 활약

손흥민 EPL 100호골·이재성도 2골 관여

김민재(나폴리)의 국가대표팀 발언 후 불거졌던 92라인-96라인 갈등설이 김민재의 부인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92라인과 96라인 선수들이 심리적인 동요 없이 유럽 무대에서 나란히 활약을 하면서 갈등설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김민재는 지난달 우루과이전에서 1-2로 패한 뒤 취재진에 대표팀보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는 발언을 해 팬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김민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대표팀 선배인 손흥민(토트넘)과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관계를 끊은 흔적이 포착돼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팬들 사이에선 둘의 관계에 대한 여러 추측이 불거졌고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1996년생과 손흥민 등 선배들 사이의 불화설까지 제기됐다. 이 역시 김민재가 빠르게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벌어진 유럽 무대 소속팀 경기에서 92라인과 96라인은 나란히 활약을 하며 심리적 타격이 없음을 보여줬다.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김민재가 먼저 제 기량을 보여줬다. 지난 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AC밀란전에서 0-4 대패 빌미를 제공했던 김민재는 8일 레체전에서는 2-1 승리를 이끌었다.

김민재는 전반 18분 자로 잰 듯 한 크로스로 디 로렌조의 선제골을 돕는 등 활약 속에 양팀 선수 22명 중 가장 높은 평점 8.2점을 받았다.

김민재의 활약에 손흥민이 화답했다. 김민재를 감싸며 논란 확산을 막았던 손흥민은 8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전에서 EPL 진출 100호골을 달성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전반 10분 페널티박스 왼쪽 외곽에서 오른발로 절묘하게 감아서 차 브라이튼의 골네트를 갈랐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5년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후 EPL 통산 100번째(50도움) 골을 기록했다.

다른 92라인-96라인 선수들도 덩달아 활약했다.

92라인 이재성(마인츠)은 8일 독일 분데스리가 베르더 브레멘전에 교체로 투입된 후 2골에 모두 관여했다.

이재성은 0-0으로 맞선 후반 40분 절묘한 흘리기 후 빠르게 크로스를 올려 선제골을 이끌어냈다. 이재성은 1-1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3분에도 강력한 헤더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넬슨 바이퍼의 골을 도왔다.

96라인 황인범은 지난 6일 그리스 수페르리가 엘라다 플레이오프(PO) 3라운드 PAOK와 홈 경기에서 소속팀 올림피아코스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황인범은 1-1로 맞선 후반 32분 전방에 있는 엘아라비를 향해 전방 공간 패스를 했다. 이 패스를 예측하지 못했던 상대 수비는 따라가지 못했고 엘아라비는 여유를 갖고 크로스를 올렸다.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헤더로 연결한 공은 수비 맞고 공중에 떠올랐고 마수라스가 이 공에 재차 머리를 갖다 대 골망을 흔들었다.

96라인 황희찬도 부상을 털고 복귀했다. 황희찬은 8일 열린 첼시와 EPL 홈경기에서 후반 18분 교체로 투입됐다. 황희찬은 지난달 1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경기 이후 27일 만에 EPL 복귀전을 치렀다.

디에고 코스타 대신 들어간 황희찬은 활발하게 움직였다. 황희찬은 후반 43분 세계 최고 수준 수비수로 평가되는 쿨리발리와 어깨 싸움에서 이겨 공을 뺏은 뒤 공격 기회를 잡는 듯 했다. 주심은 황희찬이 쿨리발리를 밀었다며 반칙을 선언했다.

K리그에서 뛰는 96라인 나상호도 활약을 이어갔다. 나상호는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6라운드 홈 경기에서 골을 넣어 팀의 3-0 완승을 주도했다.

나상호는 전반 33분 코너킥 공격 때 권완규의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문전에 서 있다가 지체 없이 차 넣으며 시즌 3호골을 터뜨렸다.

뉴시스

전수환·이수민, 군산새만금 마라톤 우승

전수환(충남도청)과 이수민(논산시청)이 2023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전수환은 9일 군산 월명운동장을 출발해 군산시 일원을 달리는 42.195㎞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16분28초에 완주, 2시간17분43초를 기록한 정하늘(충남도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달 19일 서울마라톤에 출전해 2시간15분59초의 기록으로 국내부 4위에 오른 전수환은 3주 만에 다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여자부에서는 이수민이 2시간34분59초의 기록으로 정상에 섰다. 2위는 2시간36분59초를 기록한 김은미(여수시청)다.

하지만 전수환과 이수민 모두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출전권 획득에는 실패했다.

대한육상연맹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국내외 마라톤 기록을 바탕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남녀 2명씩을 선발한다.

남자부에서는 서울마라톤 국내부 1위 박민호(코오롱·2시간10분13초), 2위 심종섭(한국전력공사·2시간15분01초)이 이 기간 1, 2위를 질주하고 있다.

서울마라톤 국내부 1위 정다은(K-water·2시간28분32초), 대구마라톤 1위 최경선(제천시청·2시간28분49초)이 여자부 1, 2위에 올라있다. 4월에는 국내에서 더 이상 마라톤 풀코스 경기가 열리지 않는다.

이달 내에 국외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박민호와 심종섭, 정다은과 최경선의 기록을 넘어서는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 4명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거쳐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로 뽑힐 전망이다.

김연경·박정아·배유나 등 20명 FA 시장 나왔다

여자 프로배구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김연경과 챔피언결정전 우승 주역 박정아, 배유나 등이 프리 에이전트(FA)로 풀린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9일 여자부 FA 명단을 발표했다.

해외 무대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김연경은 생애 첫 FA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연경은 2022~2023시즌 공격종합 1위, 득점 3위에 오르면서 흥국생명을 정규리그 1위에 올려놨다. 챔피언결정전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대회 내내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김연경은 시즌 중 은퇴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연경은 실력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내려오고 싶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김연경이 은퇴를 미룬다면, 생애 처음으로 핑크색이 아닌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다.

아웃사이드 히터 박정아 역시 타 구단에서 탐내는 자원이다. 박정아는 뛰어난 득점력과 함께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한국도로공사의 두 번째 챔피언결정정전 우승을 이끌었다.

김연경

박정아는 이번 시즌 득점 8위, 공격종합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도로공사의 또 다른 우승 주역 미들블로커 배유나 역시 네 번째 FA 문을 두드린다. 문정원과 전새얀도 FA로 풀렸다.

현대건설의 아포짓 스파이커 황연주와 리베로 김연견도 또다시 FA 시장에 나왔다. 황연주는 통산 다섯 번째 FA를 앞두고 있고, 김연견은 세 번째다.

현대건설의 정규리그 2위의 주역인 아웃사이드 히터 황민경과 정시영도 시장의 평가를 받는다. IBK기업은행에서 뛰었던 미들블로커 김수지와 아포짓 스파이커 김희진도 통산 다섯 번째 FA를 맞이한다.

◇V-리그 여자부 FA 선수 20명 명단

▲흥국생명= 김연경(A), 도수빈(B)
▲한국도로공사= 배유나, 박정아, 문정원, 전새얀(이상 A), 정대영(B)
▲현대건설=황민경, 김연견(이상 A), 황연주, 정시영(이상 B),
▲KGC인삼공사=한송이, 염혜선(이상 A), 채선아(B)
▲GS칼텍스=문명화, 한수진(이상 A)
▲IBK기업은행=김수지, 김희진(이상 A)
▲페퍼저축은행=이한비, 오지영(이상 A)

이번 시즌 도로공사에서 뛰었던 미들블로커 정대영, KGC인삼공사에 활약했던 미들블로커 한송이는 여섯 번째 FA 시장에 나왔다.

국가대표 세터 염혜선(인삼공사)도 네 번째 FA 자격을 얻었다.

A그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 영입선수를 포함해 구단이 정한 6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 소속 구단의 바로 전 시즌 연봉 300%의 이적료를 지불하여야 한다.